

산문박의

한국서예의 거장 如初 金 膺 碩

서도삼매 넘나드는 화해의 필봉



삽화 · 이기선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라”

악한 짓 하지말고 착한 일 실천하는 가르침

조용한 새벽이다. 나는 향불을 사루어 놓고 합장 예경한다. 소담한 인연을 세워 기도한다. 앞으로 얼마동안 현대불교지면에 올 “오늘의 불교”의 내용이 알뜰하고 유익하고 또한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염원한다. 이 글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불교가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삶의 향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간결하면서도 쉽게 쓰려고 한다. 문제가 아닌 필자의 문필이 어떤 때는 독자를 괴롭힐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불교의 교설을 가슴에 담고 싶고 글을 쓸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자상한 예경을 갖고 읽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치있는 필적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글은 혼자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공감을 얻지 못하면 무용한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불교인이 오늘에 꼭 있어야 할 생각들, 실천되어야 할 덕목, 지향하여야 할 불교인들의 삶의 향기를 부드럽게 써 내려가려고 한다.

목재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일곱 부처님의 가르침

〈七佛通說〉

은 들어 실천하라. 스스로 마음을 밝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칠불통제(七佛通說)라하여 불교인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설이다. 착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악행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일체의 악한 행위를 제지하는 도덕적 금지 조항이다. 선·악,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악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한 노력을 시시각각으로 다짐하지 못하면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쏠릴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에 다짐이 세우는 정도, 보충 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불과 현재불이다. 과거불은 비바시부처님에 서부터 연등부처님까지 여섯 부처님이고, 현재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모든 부처님을 칠불이라고 하는데 이칠 부처님이 공통된 가르침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악한 짓은 짓지 말고, 온갖 착한 것

한것은 깊은 의미가 내재된 것이다. 악은 받을 대상에서 그 자격이 없고 선은 받을 자라 할 절대적 명제인 것이다. 우리는 착함을 병행하는 의식이 조급씩 소멸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명제는 제지함과 병행 할 것을 교시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라, 고 한것은 차원이 다른 의미다. 본래 마음은 맑아 있었던 청정성, 여래성이다. 이 청정성이 탁탁하게 되고 여래성이 중생으로 뒤바뀌어 졌다면 인간의 오류요 오점이 아닐수 없다. 마음의 해탈은 허공과 같다. 비어 있는 허공은 청아하고 거룩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늘과 같은 공명함, 하늘빛과 같은 청정함을 담으려고 하늘을 우러러 본다.

너·나 구별없는 평등심

이처럼 비어 있음은 항고되고 따뜻하다. 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정(自淨)其心,의 의미일 것이다. 삼의 연구들이 마음에 끼이면 번뇌가 되고 이 번뇌가 선·악을 만들어 낸다. 선이나 악이 생기지 않는 마음, 마치 허공에 구름이 일지 않으면 창창한 하늘이듯이 우리 인간의 근원은 여래성이요 평등성이다. 부처님 일곱분이 한결같이 이와 같은 청정성을 되찾아 내라고 우리들에게 계명하신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통 사람은 악을 나쁘고 선을 기리고 찬탄할 것이라 하지만 여실한 진리는 그와같은 본질성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폭면은 천진난만한 것이어야 하고 가고 오고 하는 시간성이나 크고 작은 공간성이 아닌 절로 절로 되어진 절로 있어야 할 마음자리이다. 이 마음의 빛살이 환하게 너·나 구별없이 평등하여야 스스로 맑아지고 스스로 밝히는 마음인 것이다.

임연태 기자

“하의 다리를 떼어다 오리에 붙이면 그것은 학인가, 오리인가.”

한국 서예계의 거장 여초 김응현선생은 이 이치만 알면 예술과 선의 궁극적 경지를 다 아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의 몸은 가벼우니 하늘로 긴 다리가 자연스럽고 오리의 몸은 무거우니 짧은 다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초 선생은 이 단순한 논리가 갖는 의미를 통해 세상의 진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여초 선생에게 있어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반세기를 걸쳐 써온 글씨, 그러나 끝이 없는 서법(書法)의 길이 곧 수행의 길이다. 마음이 들뜨는 날은 글씨의 획도 들뜨고 우울한 날엔 쓴 글씨 역시 우울한 것. 그 무상한 변화의 길이 곧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설명이다.

그 진리의 처음과 끝은 다시 ‘화해’라는 의미로 이어진다. “화해 한다는 것은 곧 자연스러움을 드러내는 바탕입니다. 선·악이든 장·단이든 또 넓고 좁음이든 대립적 개념들이 화해를 함으로 이뤄내는 자연스러움을 인간에게 지극한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고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움, 이것은 여초 선생이 글씨를 쓰며 가장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자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모든 사물과 논리가 갖는 모순성을 화해시켜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초 선생은 꾸준한 탐구의식과 끝없는 수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을 한다고 밖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탐구에 나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지만 몸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초 선생의 이같은 입장은 글씨를 쓰는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초 선생은 어떤 글을 쓰든 첫화에서 마지막까지 서로의 화해가 이뤄졌을 때 진정한 서법의 경지에 다다른 게 된다고 강조한다. 다시말해서 어떤 글씨에도 인간의 참모습과 학문의 길이, 종교의 가르침등 인간에서 시작되고 인

간에서 종결되는 제반 가치들이 화해의 모습으로 어우러진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초월한 「천성」의 반영이기도 하다는게 여초 선생의 설명이다.

— 화해가 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

▲ 어떤 마음이면 가져서는 안되지. 마음을 놓아야해.

여초 선생에게 있어 글씨를 쓰는 것은 화해와 자연스러움을 향해 가는 끝없는 수행길이다. 그 길에서 선생은 달마를 만나기도 하고 공자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서 만나는 달마와 공자는 옛날의 달마·공자가 아닌 오늘의 여초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의 극에 다다르면 그곳이 곧 선의 묘한 이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은 학문만 있어도 안되고 논리와 예술적 재간만 있어도 안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두루 통하는 넓고 큰 길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이 된다. 그 허물없는 교감이 없는 한자의 글씨도 글씨답게 써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글이 달마나 공자뿐만 아니라 저자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책에서 읽는 모든 글들과도 허물없는 교감을 이



◇ 선서일여의 경지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는 여초 김응현선생

글씨도 인간의 참모습 담겨야 아름다와

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여초 선생의 지론이다. 사실 여초 선생의 넓고 깊은 독서량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넓은 독서량에서 그의 글씨가 나오고 허물없이 교감하는 역대 조사들과 대화 속에서 화해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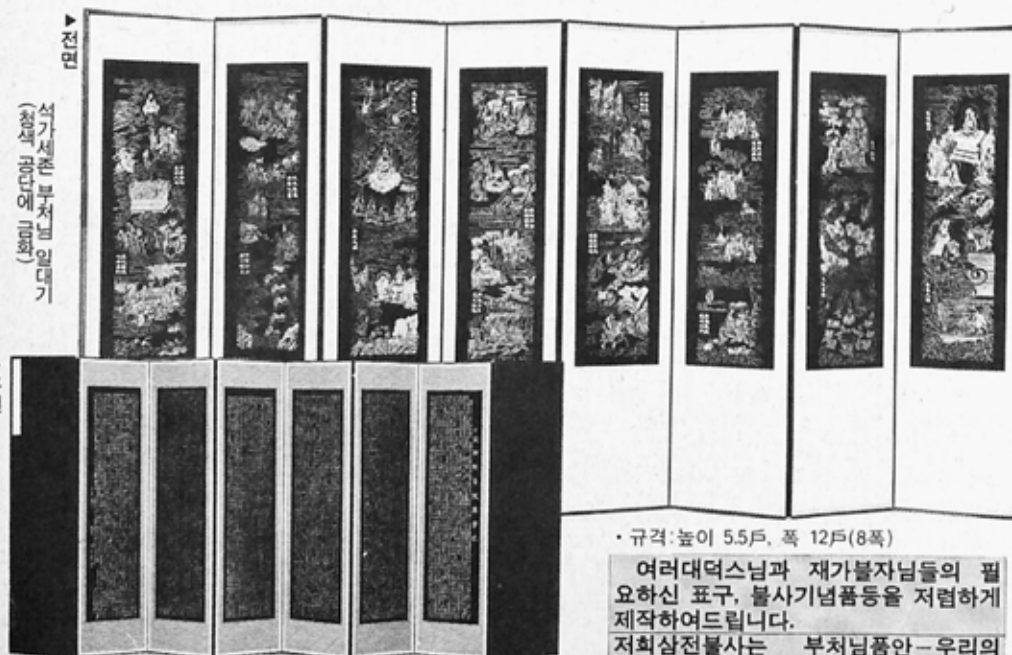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의 극에 다다르면 그곳이 곧 선의 묘한 이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은 학문만 있어도 안되고 논리와 예술적 재간만 있어도 안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두루 통하는 넓고 큰 그 길로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닦아 가는 것은 꾸준한 수행을 통해 이뤄진다고 여초 선생은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초 선생에게 있어 서법이건 불교이건 모두 스스로의 화해와 자연스러움을 터득하는 도구일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것이다. 혜능이 홍인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남쪽으로 떠나는 밤, 스승에게 “이제 제가 노를 저어 건너겠

습니다.”라고 말했듯이 여초 선생은 스스로 서법의 세계를 개척하고 그 속에서 서도삼매의 청정미묘한 맛을 즐기는 것이 다. 서도삼매의 깊은 정적속에서 깨진 여초 선생의 글씨들은 이미 한국 서단에 서서만 아니라 중국의 서도가들에게도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올해 5월과 9월에 중국 서도의 최고봉인 계몽(啓蒙)선생과 교류전을 가졌을 것인 것 같다. 여초 선생은 현재 경기도 구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공덕을 쌓는 성품 佛子님들에게 표구비만으로 드리겠습니다.

석가세존일대기(팔상록), 금강경원력 병풍



· 규격: 높이 55.5, 폭 12.5(8폭)

여러대덕님과 재가불자들의 필요하신 표구, 불사기념품등을 저렴하게 제작하여드립니다. 저희삼전불사는 부처님품안-우리의 미래 포교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살이있는 명품-팔상록, 금강경

· 작품해설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 일대기를 손으로 전면에 조성하고 후면에 경전의 으뜸인 금강경을 손으로 사경하여 원력을 담았습니다.

· 전면:팔상록 · 후면:금강경

1. 도솔대의상-석가세존이 마야부인의 태중에 드시다.
2. 비림강생상-몸이니 꽃동산 단행하시다.
3. 시문유관상-생노병사의 허무를 관찰하시다.
4. 유상출가상-한밤에 벽을 넘어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시다.
5. 설산수도상-설산의 6년 고행 최후구경의 정경을 이루시다.
6. 수희왕이상-마라괴수의 도전을 받고 공부를 받으시다.
7. 녹원전법상-5비구의 권리와 녹아원 설법하시다.
8. 쌍림일방상-일방에 드시다.

포구기념품증정

부처님의 생품을 통하여 대중 포교를 펴고자 본상품을 선정하셔는 분께 백자 반야달마 도자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백자 반야 달마도자기)

특별보급가격: W390,000(현금및 은행신용카드) 장기분할가격 W428,000 인수시 44,000, 매월 48,000 x 8회

함금 관음친견도

대비성자이신 관세음보살친견도를 가정마다 모시는 불자가 됩니다. 힘주고 어려울때 힘을 빌려 주십니다.



재가불자 성도 거사님이 직접 그린 금회입니다. · 족자규격: 1520X520(%) · 포구가격: W198,000원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 포교원 ■ 문의처 : (02)439-6128~9

(글로벌서비스)전화 080-022-1100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글로벌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